

면수건에서 1회용 종이내프킨으로

23년간 국내에 위생용 내프킨, 키친타올, 종이타올을 생산공급한 한국특종지(주)(대표이사 : 유혜상)은 젖소유방세척시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1회용 종이내프킨을 개발시판한다.

한국특종지(주)는 1970년 한국특수제지공업사로 설립, 83년에 1회용 물수건 생산, 88년에 한국특종지(주)로 상호를 변경하고 89년 4월부터 자동식 1회용 물수건 양산체제에 들어갔으며 연간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식당용 내프킨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이다.

한국특종지(주)가 1회용 젖소내프킨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식당용 종이물수건(종이를 물에 적서 사용하는 수건)을 일부지역(경기도, 전라도) 낙농가들이 구입해 젖소의 유방을 닦는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사용해 본 낙농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는데에 착안 젖소에 맞는 젖소내프킨을 개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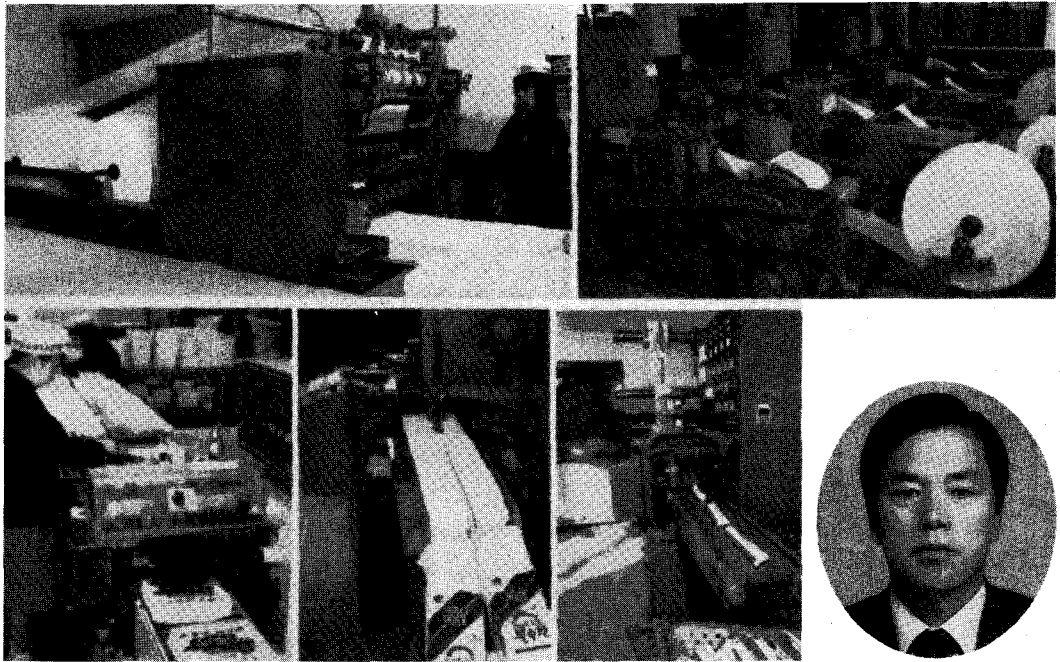
이 젖소내프킨은 지난 92년 하반기부터 금년 1월말까지 경기도 안성의 S목장에서 실험을 하면서 재질, 규격, 포장용기 등에 대한 실험을 해 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.

제품의 규격은 260×280mm로 평량은 60g(1㎡)인 엠보싱형태의 종이타올의 내프킨, 재질은 펄프 50%, 고지(古紙) 50%로 사람이 쓰는 종이타올(큰 건물화장실에 있는 종이수건)보다 고품질로 습강(濕強)처리가 되어있어 물에 젖어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되어있다.

이는 젖소 유방의 물기를 닦아내고 오물을 제거하는데 적절하게 고안·제작되었다.

젖소내프킨의 흡수도는 화장용 티슈와 비슷하나 반면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사람이 쓰는 티슈와는 차이가 있다. 이같은 일반 생활용지와는 다른 특성때문에 젖소내프킨을 만드는 데는 기술축적이 필요하다.

습강처리(물에 젖어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처리 한 것)만 강조하면 흡수도가 낮아지고, 흡수도만 좋게하면 습강이 떨어지는 점의 상호역학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젖소내프킨의 노하우라고 유혜상대표이사는 밝힌다.



◦ 젓소 1회용 내프킨 전자동 생산시설과 유혜상 사장

또한 표면의 엠보싱처리도 젓소유방에 부드러움을 주는 동시에 세척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특히 제품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젓소내프킨 제조과정에서 원료인 펄프를 풀 때 차아염소산(소독약)처리를 해 살균을 한 후 종이형성과정에서 건조상태를 이루기위해서 약 100℃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제품의 위생처리는 완벽하다고 한다.

판매되는 젓소내프킨의 수분함량이 5~6%이하이므로 세균 서식이 불가능하다.

이 일회용 젓소내프킨은 가격면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중인 면수건과 경쟁력이 있을 뿐만아니라 인력절감, 위생적원유생산 등의 측면에서는 낙농농가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세균수를 절대 감소시키고 유방염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도 이제품을 사용한 낙농가의 말이다.

한국특종지(주)는 이 젓소내프킨을 낙협이나 낙우회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. 가격은 100매들이 소포장에 1,500원이다.



◦ 젓소 내프킨